

도내 대표 양식품종 집중 육성

도 수산기술연구소, 패류종자 대량 생산시설 구축·내수면 특화 품종 육성 등 추진 도내 수산업 활성화·수산자원 회복·양식품종 다변화·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가 급격히 변화하는 어장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양식품종 특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수산기술연구소는 도내 대표 양식품종인 패류 양식산업 활성화 및 내수면 갑각류 특화품종 육성, 고부가가치 수산종자 생산기술 연구·방류,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강화를 통해 도내 수산업 활기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대표 바다 양식품종인 바지락 등 패류종자의 표준 생산기술개발을 통해 패류종자 수급을 안정적으로 개선한다.

도 연구소(고창군 해리면)에 오는 2023년까지 70억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첨단 ICT를 활용한 패류종자 대량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내 서해안은 갯벌이 발달해 있으나, 해양 환경변화 등으로 패류 종자 자연 발생량이 소멸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종자 수급이 어려워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패류종자 대량생산시설 구축을 통해 국내산 패류 종자 주권 강화와 지역 현안인 패류 종자 수급 안정화 및 패류 양식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수면 양식품종 다변화 및 도내 대표 양식품종 육성을 위한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완주군 고산면에 있는 수산기술연구소 산하 '민물고기연구소'에 오는 2022년까지 52억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친환경 내수면 갑각류 연구센터'를 구축한다.

내수면 갑각류의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 및 스마트양식 시스템을 도입, 종 보존 및 우수 종자생산 매뉴얼을 데이터화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내수면 갑각류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연구시설'을 오는 2023년까지 70억원을 투자해 민물고기연구소 인근에 구축, 보급형 스마트양식 기술을 개발한다. '실증연구시설'은 현재 단위면적 생산량 0.18kg/m²를 세계 일류 수준인 20kg/m², 생존율은 19%에서 80%까지 끌어올리고, 양식기술 표준화 매뉴얼을 개발·보급해 어업인 진입장벽 해소 및 내수면 양식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내 환경에 적합한 신품종 시험연구개발 및 고부가가치 수산종자 생산 방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험연구 사업으로 바다생물(백합, 짬뽕어, 김, 박대) 인공종자 생산 연구와 내수면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기호도가 높은 갑각류(원다리새우 저염 양식, 큰징거미새우 양식, 토하 양식) 중심의 다양한 양식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양식기술 개발 시 양식품종 다변화와 어업인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불량(50건~120건) 및 조사항목(40항목→69개 항목)을 대폭 확대해 도민들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문 경영인 육성을 위한 17개 과정 수산분야 기초 및 전문 교육을 실시, 신규 창업자가 6명에는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운동목 도 새만금해양수산공장은 "패류종자 수급문제 해결, 전북형 첨단 스마트 양식기반 마련 등 도내 대표 양식품종을 집중 육성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 등 미래 친환경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 축산농가 '퇴비 부속도 제도' 준수 당부

전북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퇴비 부속도 제도'의 계도기간이 3월 24일 종료됨에 따라, 25일부터는 관련 법에 따른 부속도 기준 준수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란 가축

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퇴비 부속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제도이다.

축사 1,500㎡이상 및 관련업체는 부속후기 또는 완료, 축사 1,500㎡미만은 부속중기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유호상 기자

전북지역 '반려견과 함께 하는 우선 안심 걷기 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16일 전북도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전북도청에서 도내 6개 시·군 및 관련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반려견과 함께 하는 우선 안심 걷기 길'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걷기길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전북도민의 특색있는 콘텐츠를 강화하고, 관광객 유치에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공사는 걷기길 관련 관광수용태세 개선,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체류형 관광코스 개발 및 관측 지원 등을 전담하고, 지자체는 관광수용태세 개선 협력 등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한다.

또한, 관련 업계(에어비앤비, 쉼츠

도,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소독의 날' 운영

전북도가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소독의 날'을 맞아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질병 예방 등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축산환경·소독의 날'은 매주 수요일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축사 내·외부 청소 및 환경정리, 소독 활동을 전개해 축산농가의 환경관

리 인식개선과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지난 2018년 3월, 매주 두 번째 수요일을 축산환경 개선의 날로 지정·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부터는 그간 별도로 운영되던 축산환경 개선과 소독 활동을 통합해 매주 수요일을 '축산환경·소독의 날'로 지정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장학생 멘토링사업 추진

전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학권)이 다양한 멘토링 사업을 통해 전북 인재 육성에 앞장선다. 17일 멘티선발 접수, 4월에 멘토 선발, 5월부터 멘토·멘티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전북장학생 멘토링사업은 도내 출신 대학생들과 중·고등학생간 멘토 활동을 통해 학습방법 및 진로에 대한 안내와 상호간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유호상 기자

'안녕 서부공감! 함께할게' 지역사회 후원 전달식

전북도자원봉사센터,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화상으로 한국서부발전서 후원한 1억6000만원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광호)는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화상으로 연결해 한국서부발전(주)에서 후원한 1억6,000만원의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된 후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14개 시·군에 '안녕 서부공감! 함께할게'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물품을 구매, 의료진들의 격려물품 지원과 국민안심키트, 생필품지원, 상가 무상방역, 밀반찬 및 도시락 나눔, 소독기 등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민들에게 지역사랑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통한 필요 물품 등이 지원되며, 도내 통합 재난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들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한국서부발전(주) 군산발전본부는 도민들과 희망을 함께 나누고자 온누리 상품권 지원 및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불가피한 취약학생들의 학업향상을 위해 노트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는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화상으로 연결해 한국서부발전(주)에서 후원한 1억6,000만원의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활동을 주관한 도센터 김광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희망이 되는 한국서부발전의 따뜻한 기부에 감사드립니다"며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예방 및 확산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호상 기자

반려견과 함께 찾는 전북 관광 활성화 '한똥'

도-한국관광공사-6개 시·군-관련 업계, 다자간 업무협약

전북도와 한국관광공사가 1,500만 반려동물 양육시대에 맞춘 관광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에 힘을 모았다.

16일 전북도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전북도청에서 도내 6개 시·군 및 관련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반려견과 함께 하는 우선 안심 걷기 길'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걷기길 활성화 사

업을 통해 전북도민의 특색있는 콘텐츠를 강화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공사는 걷기길 관련 관광수용태세 개선,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체류형 관광코스 개발 및 관측 지원 등을 전담하고, 지자체는 관광수용태세 개선 협력 등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한다.

또한, 관련 업계(에어비앤비, 쉼츠

고트래블)는 '걷기길' 연계 여행 편의 시설 DB발굴 및 체류형 관광코스 상품화를 통해 전북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노점환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본부장은 "올해 한국관광공사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려동물 테마가 전북에서 시범사업으로 자리잡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더불어 침체된 전북도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운영일 도 문화체육관광공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팻친화인증 시설 지정·관리부터, 반려동물 동반 테마 여행 개발까지 1,500만 반려동물 양육 시대에 맞춰 전북도가 중심이 돼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려견과 함께 하는 우선 안심 걷기 길'은 ▲새만금 광역탐방로(김제시) ▲요천생태습지공원 애견공원(남원시) ▲경천애인 징검다리길(완주군) ▲오수의견 관광지(임실군) ▲운일암반일암 숲길(진안고원길 9구간(진안군)) ▲삼진강 예방천리마실길(순창군) 등 6곳이다. /유호상 기자



16일 전북도와 한국관광공사는 전북도청에서 도내 6개 시·군 및 관련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반려견과 함께 하는 우선 안심 걷기 길'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